"군산-中석도 운항횟수 늘려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카페리호 주 3항차에서 6항차로 확대 요구

군산-중국 석도 간 운항하는 카페리호의 운항 횟수 증편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다. 〈본보 7월 28일자 2면〉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지난 27일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에 군산-중국 석도 간 카페리호 운항 횟수 증편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는 급증하는 승객과 화물의 증가세를 감당하지 못해 주 3항차에서 6항차로 확대해달라는게 주요 골자다.

사실 군산항은 전라북도 지역 내 유일한 국제 무역항으로 중국 동부의 주요 항만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배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군산 국가1,2산업단지와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중경제협력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중국 교역의 전초기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군산항은 지난 2008년 개설된 이후 승객수는 물론 화물이용의 증가세가 두드려져 지난 2009년 1만5천TEU였던 화물이 지난해 3만TEU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올해도 6월 말 기준 1만5천783TEU로 지난해 같은 시기 기준 1만2천837TEU 대비 20%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석도 간 카페리는 2008년 개설이후 현재까지 1개항로 주 3항차 운항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현재 운항되고 있는 한중카페리는 인천항을 기점으로 16개항로 주 26항차, 평택항을 기점으로 5개항로 주 14항차가 운항되고 있는 등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항차운행의 편중 현상은 결국 군산항 화물의 타 항만 이탈을 초래함으로써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기업들의 전북 입주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의 도내 유입에도 지장을 주는 등 전라북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선홍 전북상협 회장은 "최근 군산항과 중국 석도 간 한중카페리 이용 기업과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편 운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과 인근 항만 이용에 따른 물류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군산항과 중국 석도 간 한중카페리 항차를 주 3항차에서 6항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광영기자

이스타항공, 아-태 'U-FLY Alliance' 가입

95대의 항공기와 170여 곳의 노선 공유로 시너지 효과 기대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이 세계 최초로 출범된 아태지역 LCC 얼라이언스인 'U-FLY Alliance'에 가입했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U-FLY 얼라이언스는 홍콩과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4개 주요 항공사 (홍콩 익스프레스, 럭키에어, 우루무치에어, 웨스트에어)로 이루어진 연합체로서, 지난 1월 LCC 최초로 설립 됐다.

이번 U-FLY Alliance 합류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인터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U-FLY 얼라이언스가 보유하고 있는 95대의 항공기와 170여 곳의 노선 공유를 통한 다구간 여정을 향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까지 130여 만 명의 방한 중국인관광객을 수송하며 국내 LCC 중 최대 중국노선 운항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이번 얼라이언스를 통해 중국노선의 네트워크 강화와 더불어 상호 항공사들 모두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스타항공 김정식 대표는 "U-FLY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U-FLY 회원사로서 함께 협력하여 고객들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U-FLY 가입을 기념해 홍콩,중국노선 "특가이벤트를 7월31일까지 진행한다.

탑승기간 9월1일부터 10월29일까지의 항공편을 특가로 제공하며, 편도 기준 총액운임 인천-홍콩 12만3,000원부터, 인천-지난(제남) 7만9,000원부터, 청주-선양(심양) 8만9,000원부터, 청주-푸동(상하이) 7만9,000원부터, 청주-옌지(연길) 11만9,000원부터, 청주-하얼빈 8만9,000원부터, 청주-다롄(대련) 6만9,000원부터, 청주-닝보 9만9,000원부터 제공한다.

해당 특가 운임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및 모바일 웹(앱)에서 확인 및 이용 가능하다.

/신광영기자

가나 농촌개발공무원 농어촌공 부안지사 물관리시설 등 견학

TM/TC 물관리 시스템과 청호저수지 태양광발전 시설 등 견학한 가나인들

가나 아쿠미단 농촌개발 및 채소단지 관개사업에 참여중인 공무원 및 농업인 10명이 지난 27일 농어촌공사 부안지사를 방문. TM/TC 물관리 시스템과 청호저수지 태양광발전 시설을 견학하였다. 이날 연수생들은 농어촌공사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전수받아 가나의 열악한 농업 관개시설 개선에 활용하려고 부안지사를 방문하게 됐다. 이 자리에 김병수 지사장은 "공사의 물관리 노하우를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에 전수하여 농작물 생산량 증대를 통한 먹거리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신성건설' 시공능력평가 올해도 1위

2위 신일 · 3위 한백

2016년 시공능력평가에서 도내 소재 종합 건설업체 중 (주) 신성건설이 1,214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고수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2016년도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를 국토교통부장관이 7월 28일 공시했다.

1위인 신성건설에 이어 (주)신일이 1,077억원으로 2위(작년3위)에 올라섰으며, 지난해 2위였던 (유)한백종합건설은 3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12위였던 (주)대창건설이 8위에 올라 새롭게 'TOP 10위권'으로 진입했다.

이밖에 지난해 50위권 밖에 있었던 (주)우미(65위→65위), (주)리드(58→39위), (유)동영산업(67위→42위), (유)태림종합건설(59위→46위), (유)도영종합건설(51위→47위), (유)동부종합건설(54위→48위), (주)승빈종합건설(75위→49위), 한동건설(주)(64위→50위)이 새롭게 50위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에 1등급업체는 없는 가운데, 상위 50위권의 평균 시평액이 전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요인으로는 정부의 SOC 축소 정책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 물량감소와 더불어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가계부채에 따른 민간소비 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기자

SSG페이는 '3세대 쿠폰' 시장의 문을 연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SSG페이, 결제와 혜택 한번에

모바일 간편결제 SSG페이가 '쿠폰 자동 적용 서비스'를 시작, 업그레이드된 간편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종이 쿠폰, 모바일 쿠폰에 이은 '3세대 쿠폰' 시장의 문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SSG페이의 첫 쿠폰 자동 적용 서비스는 '이마트 앱'의 쿠폰 적용이며, 자동 적용 가능한 제휴사 쿠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마트 앱에서 쿠폰을 다운받은 고객이 이마트에서 SSG페이를 사용하면, 이마트 앱의 쿠폰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결제와 동시에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재창업자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재창업자가 재창업 이전 기업에 대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재창업자에 대해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자금을 지원, 재도전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 기업인의 고의부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실패기업인 전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재창업자의 재기 및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왔다"면서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김영란 법' 합헌 결정에 소비풍속도 크게 바뀔 전망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원안대로 오는 9월28일 이후 시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건네던 소비 풍속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한정식집 등 고급 음식점이 매출 부진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구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A(41 · 여)씨는 "우리 식당의 주로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 기업체 임원, 고위 공무원, 언론사 간부들이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사실상 영업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면서 "한정식집 인수를 위해 받은 대출도 아직 갚지 못한 상황인데 정말 난감하다"고 말했다.

앞서 종로구에 위치한 60년 전통의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이 이미 이달 초 문을 닫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비교적 저렴한 쌀국수집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져다.

게다가 술이 곁들어질 수밖에 없는 저녁 약속도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의 부서별 회식도 젊은층에서 거부감을 느껴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는 "정관계 사람들과 저녁자리, 술자리가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녁 약속이 거의 사라지고 곧바로 집으로 퇴근하게 될텐데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반색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명절선물세트도 대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가격 기준으론 명절에 잘 나가는 화과자 세트도 몇개 안든 실속 상품이 5만원 이상"이라며 "김영란법에 맞춰 선물을 고른다면 마트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참치캔 세트, 비누 샴푸 등 생활용품 세트 밖에 없을 것인데 얼마나 팔릴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구독문의 288-9700